

타이어 찢기고 건물 균열...민원 폭주하는 지하철 공사

정의당 두달간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 피해 접수...148건 신고 소음 진동에 문 틀어지고 포트홀 빠지기도...대부분 보상 못 받아

12일 오후 광주시 동구 학동 조선대 인근 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사 현장 인근 도로는 지하 터파기 공사에 따라 복공판으로 덮여있었다.

복공판은 노면과 큰 단차를 만들어 차량이 지나 갈때 마다 덜컹거렸고, 일부 구간에서는 차량이 기울어진 상태로 주행할 수밖에 없었다.

단차를 피하기 위해 옆으로 비껴가려다 옆 차로 차량과 부딪칠 뻔한 아찔한 장면도 쉽게 목격됐다.

도시철도 2호선 공사로 인해 광주 도심 도로 곳곳이 공사장으로 변하면서 타이어가 찢기고, 지반이 내려앉는 등의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

12일 광주도시철도건설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19년 9월 시작한 도시철도 2호선 공사로 인해 현재 도심 20여곳의 도로가 파헤쳐진 상태다.

2호선 1단계 구간(17km) 중 공사가 진행중인 곳은 6개 공구로, 수습 곳에서 굴착 공사 등이 동시에 발적으로 이뤄지다보니 시민들의 민원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의당 광주시당이 지난 5월부터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있는데 12일 기준 총 148건의 불편사항이 접수됐다.

가장 많이 접수된 민원은 차량 파손이다. 특히 타이어 찢김과 펑크 사례가 40여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여름 광산구 송촌사거리-서구 금호사거리 구간 공사 현장에서 튀어나온 공사자재에 타

이어 옆이 찢어져 개인 비용으로 처리했다는 민원도 있었다.

지난 5월 동구 지산동 법원사거리에서도 타이어 펑크가 났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12일 광주일보 취재진이 둘러본 지산동 법원사거리 역시 상황은 비슷했다. 복공판이 위로 솟아 올라 있었고 차량이 조금만 빠르게 지나가면 차 전체가 공중에 뜨기도 했다. 또 일부 복공판 모서리는 날카로워 자칫하면 바퀴에 구멍이 날 수도 있었다.

공사 여파로 인한 건물 균열 민원도 33건으로 적지 않았다.

동구 계림동 서방사거리에서는 공사로 인해 40년 된 콘크리트 건물의 옥상 하단과 바닥에 금이 가기도 하고 북구 중흥동에서는 2층 건물 주차장이 지반 침하로 건물 틀이 벌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북구 풍향동에 사는 한 민원인은 "지하철 공사로 인해 집에 금이 갔고 마당에는 싱크홀이 생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싱크홀을 메꿔도 다시 그 자리에 생겨 이제는 옥벽에 금까지 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남구 백운동에 산다는 민원인은 "얼마 전 공사 진동으로 인해 주택 담장이 무너져 새로 쌓아야 했다"며 "이제는 안방에도 균열이 생기고 있어 무너질까 무섭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6년 전 남구 백운동에 집을 지었다는 민원인은 "지하철 공사로 인한 진동으로 문이 틀어지기까지

했다"며 "지하철 복공판 위를 지나가는 차량 소리에 제대로 잠도 못자고 있다"고 호소했다.

차량파손 민원도 이어졌다. 서구 운천로 인근 지하철 공사 현장을 매일 다니는 택시기사는 도로가 반듯하지 않은 탓에 차량 얼라이먼트가 틀어져 수리를 했다고 접수했고, 버스기사도 도로상황 때문에 차량 스프링, 완충장치 등 소모품 교체가 잦고, 탑승객인 학생이 넘어져 다쳤다는 불만을 제기했다.

서구 풍암지구 공사 현장에서는 차량이 공사로 인해 생긴 것으로 보이는 포트홀에 빠져 260만원의 수리비가 나왔는데 보험사 처리로 운전사 과실이 70%나 잡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문제는 이 같은 피해가 이어지고 있지만 대부분이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답변한 것이다. 타이어나 차량 부품 등은 개인 혹은 차량 보험으로 처리한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광주시청 민원접수 전화(120번)로 보상 접수했으나 '감감무소식'이라는 것이다.

정의당 광주시당 관계자는 "광주 지하철 2호선 공사는 공공 공사임에도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당사자에게 넘기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도시공사 측에서 피해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할 경우 각 구간 공사를 맡은 건설회사에 해결하라고 하고, 건설회사는 보험회사에 문제를 넘기는 과정에서 시간은 지체되고 피해 보상액은 최소화된다는 것이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이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해 광주도시철도공사에 전달할 예정이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차량들이 12일 광주시 동구 산수오거리의 지하철 공사현장 인근에서 경사지게 설치된 복공판 위를 아슬아슬하게 지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목포 영아유기 친모 "살아있는 아이 매장했다"

진술 번복... '살인죄'로 영장 신청 전남경찰청, 사체 아직 발견 못해

경찰이 6년 전 생후 이틀 된 아들을 숨지게 하고 암매장한 30대 친모(7월 12일자 광주일보 6면)에 대한 혐의를 아동학대치사에서 살인죄로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자신의 아이를 암매장한 30대 여성 A씨에 대해 살인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암매장된 사체 발굴을 재개했지만 발견하지 못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당초 '아이가 숨을 쉬지 않아, 출생 신고 전이라서 매장했다'고 밝혔으나 계속된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아이를 산 채로 야산에 묻었다'고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A씨의 혐의를 아동학대치사에서 살인으로 변경했다. 암매장 당시 아이의 생사 여부가 불투명 해 사체유기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경찰은 진술과정에서 A씨가 진술을 번복한 점

과 구체적인 상황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공범이 있거나 제 3자의 개입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특히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조사 등을 통해 이를 확인한다는 입장이지만,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휴대전화가 바뀌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지목한 매장 추정 장소에서 이틀째 시신 발굴 수색을 벌였지만 사체를 발견하지 못해 13일 범위를 넓혀 다시 발굴을 할 예정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전남 첫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

광주·전남에서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이 압수되는 첫 사례가 나왔다.

광주지검장흥지청(지청장 장인호)은 음주운전 누범기간 중 만취 상태로 다시 운전대를 잡은 A(52)씨를 구속기소하고, 음주운전에 이용한 승용차를 압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4시 20분께 장흥군 부산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만취상태로 운전한 혐의다.

A씨는 음주운전 전력이 8회에 달하며 누범기간 중에 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과 경찰은 이날 1일부터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 차를 압수·몰수하는 내용의 음주운전 방지 대책을 시행 중이다.

경기·강원·부산 등지에서 차량 압수사례가 나왔고, 광주·전남에서는 이번 사건이 첫 차량 압수사례로 파악됐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장애인 속여 모친 사망보험금 뺏은 30대 향소심서 형량 늘어

7세 정도의 인지 능력을 가진 지적장애인을 속여 모친 사망보험금을 빼앗은 30대 향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광주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성흥)는 준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31)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해남군에서 지적장애 2급인 B씨를 속여 총 45회에 걸쳐 7620만 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손님으로 방문한 B씨를 알게 됐다. B씨 명의 계좌에 모

친 사망보험금 1억원이 들어있는 것을 안 A씨는 B씨가 지적장애로 은행 업무를 정상적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타 은행으로 이체하기를 원했던 B씨에게 "내 계좌로 돈을 이체해 주면 B씨 명의의 타 은행 계좌로 옮겨 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향소심 재판부는 "장애인을 속여 모친 사망 보험금을 편취해 모두 오락비 등으로 소비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나주 지식산업센터 분양 사기 3명 영장 신청

"일반 주거용 임대 가능" 속여

경찰이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하면서 주거용도를 속인 일당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1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건설사 대표 A씨 등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초부터 나주시 빛가람동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에 건립한 지식산업센터의 용도를 속여 분양해 90여명으로부터 185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제조업·지식산업·정보통신업 등 허가된 업종의 사무실이나 종사자 기숙사로만 쓸 수 있는 오피스텔을 일반 주거용으로 임대할 수 있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한국에너지공대 학생들

의 기숙사로 임대해주면 월세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홍보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대출까지 받아 분양을 받았지만 임대를 못해 중도금을 갚느라 파산까지 하고 있다며 지난해 7월부터 경찰에 건설사와 분양대행사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혐의가 드러난 건설사 대표와 분양대행사 관계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4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의 영장실질심사는 13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정병호 기자 jusbh@

한사람의 보험비로
전국민의 경제부담 줄이

보험사기 ZERO

- 고의로 보험금을 노린 생명·신체 훼손 행위 NO!**
- 허위 사고, 허위 진단, 과다 입원 행위 NO!**
- 브로커를 통한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NO!**
- 고의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 과다 청구 행위 NO!**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처벌 사항

10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적용)

신고 포상금

적발 금액에 따라
최대 10억원 지급

경찰청
 금융감독원
 h-well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IAA 한국보험대리점협회